

낙상경험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

박정해

가천대학교 길병원

e-mail: eor343@gilhospital.com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ealth Status of Elderly Living Alone with Fall Experience

Jung-Hae Park

Nursing Department,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낙상을 경험한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오픈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전체 자료에서 독거노인 3,137명 중 낙상을 경험한 노인을 추출하였다. 남성노인 41명, 여성노인 2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난 1년 간 여행 경험이 없는 그룹, 장애관정을 받지 않은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로 높게 인식하였다($p < .001$).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은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로 진단받지 않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독거노인 중에서도 낙상을 경험한 대상일수록 일상생활 움직임도 적고, 운동 그리고 건강검진 횟수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독거노인의 경우 지금의 생활습관이나 진료 등의 문제가 부족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어려움이 내재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거주지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이 주기적인 방문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1. 서론

2020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낮은 경제적 수준과 영양부족, 사회적 제공 등 접근이 어려워 자신의 건강을 예측하기 어렵다[1].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45년 1인 노인가구는 47.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WHO에서는 건강을 객관적인 자료로만 질병의 유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인지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상을 경험한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국가 오픈 데이터를 2차 가공해 연구에 사용하였다. 독거노인 3,137명 중 낙상을 경험한 노인을 추출하였고, 평소의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건강하다”,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남성노인

41명, 여성노인 227명이였다.

2.2 분석방법

연구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은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였고, 변수 형태에 따라 기술통계, Chi-square test, Mann-whitney 군비교 분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하였다.

3. 연구결과

3.1 낙상경험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반적 특성

성별 남성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는 12명, “그저 그렇다” 15명 “건강하지 못하다” 14명, 여성은 “건강하다” 56명, “그저 그렇다” 72명, “건강하지 못하다” 99명으로 나타났다 ($p=0.527$). 썩기 보조기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건강하다”는 24명, “그저 그렇다” 43명 “건강하지 못하다” 69명, 썩기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은 “건강하다” 44명, “그저 그렇다” 44명, “건강하지 못하다” 44명으로 나타났다($p=0.003$).

3.2 낙상경험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문화생활

지난 1년 간 여행 경험이 없는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88.5%로 여행 경험이 있는 그룹보다 높았다($p < .001$).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78.8%로 장애 판정을 받은 그룹보다 높았다($p < .001$). 친목 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89.4%로 친목 단체에 참여한 그룹보다 높았다($p < .001$).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보유한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76%로 보유하지 않은 노인보다 높았다($p < .001$).

3.3 낙상경험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만성질환인 고혈압을 진단받은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77.9%로 진단받지 않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39.8%로 진단받지 않은 그룹보다 낮았다. 요통, 좌골신경통을 진단받은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31.9%로 진단받지 않은 그룹보다 낮았다.

[3] Card, A. J., “Moving beyond the WHO definition of health: A new perspective for an aging world and the emerging era of value-based care”, *World Medical & Health Policy*, 9(1), pp. 127-137, 2017

4. 고찰

우리나라의 경우 독거노인 중에서도 낙상을 경험한 대상일수록 평소 운동도 적게 하고, 건강검진 횟수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룹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독거노인의 경우 지금의 생활습관이나 진료 등의 문제가 부족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어려움이 내재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거주지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이 주기적인 방문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HW]. (2020). Survey of elderly people. Retrieved at November 2022 from
- [2] Song, Y. C.,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in urban low-income old adults”, *Health & Nursing*, 30(2), pp. 11-20, 2018